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공간의 특성에 따른 도시숲 조성방안

윤종한(생태평화연구소)

1. 서론

21세기 들어 기후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원인에 따른 코로나19 등의 신종 전염병이 확산하면서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삶의 방식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 등의 조치가 일상화되면서 코로나 상황이 종료된 후에도 잠재적인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도시공간의 구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염병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는 도시민들의 삶에 있어서 전염병의 확산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야외장소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건강과 환경오염물질 감소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도시숲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한국의 도시민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11.51m²로 2017년 보다 14% 이상 증가하는 등 증가추세에 있으나, 이는 1인당 총 도시숲 면적인 256.62m²의 4.5% 수준으로 도시지역의 전체 도시숲 조성면적과 비교해 볼 때 도시민들이 실제로 생활공간에서 휴식과 활동을 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다(산림청, 2020, 11). 외국과 비교해 봐도 한국인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파리(13m²), 뉴욕(23m²), 런던(27m²) 등 세계 주요 도시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김영환, 2018).

따라서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도시공간 변화의 수요와 특성에 부응하는 방향으로의 도시숲 확충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제기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하는 도시공간의 특성에 맞추어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가?

2. 본론

1) 연구방법

(1)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문헌과 도시숲 정책 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한 후 문헌과 정책관계자들의 의견과 아이디어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공간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종합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숲 확충방안을 제시한다.

① 문헌으로는 도시숲과 관련된 문헌 뿐 아니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특성, 미래 도시공간의 변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도시숲의 조성방안에 대한 문헌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② 더불어 도시숲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도시숲 정책의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에서 도시숲을 담당하는 공무원 2명과 인터뷰를 실시해 도시숲 조성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실 적합성있는 도시숲 조성방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③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구성된다. 첫째, 도시숲에 대한 개념과 기능 등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한국의 도시숲 조성 현황을 분석한다. 둘째, 도시숲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해 도시숲 정책관련 연구의 추세를 분석한다. 셋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공간의 특성을 설명한다. 네째, 도시숲의 유형을 분류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공간 특성에 부합하는 도시숲의 유형과 조성방안을 제안한다.

2) 연구내용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공간의 특성별 도시숲 조성방안과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증가하는 집주변 녹지수요에 대응한 도시건축물 형태 변화와 관련된 도시숲 조성방안으로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숲조성 공간확보, 아파트의 개인발코니를 통한 사적인 정원확보와 아파트내 정원의 개방화 등의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유현준, 2021).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도시숲 조성공간 확보는 개발업자들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되 대신 1층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작은 공원이나 도시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이다.

둘째, 비대면 활동의 증가로 교통량이 감소함에 따른 변화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의 이동은 증가하나 비대면 소비로 물류교통량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물류교통량 증가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행되면서 감소하는 교통량에 다른 도시숲 조성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현준(2021)은 물류수송을 지하터널을 통해 지하화할 것을 제안한다. 지하터널은 자율주행로봇 전용 지하물류터널로 개발함으로써 지상의 도로에는 교통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차선을 줄이면 녹지를 위한 여유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째, 비대면소비와 업무가 활성화 됨에 따라 대형상업시설 등이 가상공간으로 이동하고 기존의 도시내 건물이 공동화되어 새로 조성된 오프라인 공간을 도시숲이나 공원 등의 녹지공간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도시내 공간규모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시설을 갖춘 콤팩트형으로의 변화함에 따라 유휴지역이 되는 공간을 도시숲이나 생태공원, 하천공원 등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조경진·서영애. 2021).

다섯째, 도시공간이 분산형으로의 변화함에 따라 분산형 네트워크 도시의 개별 단위인 마을에에는 자족적이고 에너지 자립적인 구조가 요구될 수 있다(조경진·서영애. 2021: 55). 그러므로 지역사회에서 민관파트너십을 통해 숲조성과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을수준에서의 숲조성 사업에 대한 교육과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지원 및 육성해야 할 것이다(김민지, 2020).

여섯째, 비대면 활동과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시설이 도시내 집중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건축물에 대해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녹지 또는 수목을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공간의 특성에 따라 도시숲이 어떻게 조성되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탐색하였다. 문헌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공간의 특성과 도시숲의 유형을 파악해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공간의 특성에 적합한 도시숲 조성방안을 도시공간 및 도시숲 전문가들의 의견, 정책실무자들과의 인터뷰, 그리고 도시숲 조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통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숲 조성방안과 관련해 정책학이나 행정학 분야의 문헌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사회적 현상과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문헌을 학제적으로 검토하고 종합하여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적합한 다양한 도시숲 조성 아이디어를 통합적으로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도시숲 조성에 대한 비교적 큰 그림을 파악하는 것 위주로 연구를 진행하여 도시숲 조성방안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다루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또한 문헌에 대한 분석과 종합 위주의 연구이어서 새로운 사례의 발굴에도 계량적인 측면에의 분석에도 미흡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은지·홍정식·이슬비·김용근. 2014. 서울시 생활권 도시숲의 유형과 규모에 따른 이용행태 비교 연구: 봉제산·아차산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8(1): 90-98.
김민지. 도시숲 조성·관리 연구. 산림청. 2020.
김영환. 2018.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도시 숲 확대 조성, 이슈와 전망. 숲과 문화 27(4): 21-23.
김정화·김용국. 2019. 영국의 포용적 도시재생을 위한 공원녹지 정책 사례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47(5):78-90.
변우혁·김기원. 도시숲 이론과 실제. 이채. 2018.
여운상. 2011. 도시숲 복원을 통한 쾌적안전 도시 실현. BDI 정책포커스 114: 1-12.
온수진. 2050년 공원을 상상하다: 공원이 도시를 구할 수 있을까. 한숲. 2020.
유현준. 공간의 미래: 코로나가 가속화시킨 공간 변화. 을유문화사. 2021.
이상채·박세영·손학기·한소영·권윤구·김은일. 2020. 주민참여형 도시숲 조성 유형 및 특성 분석 12(1): 1-15.
장영지·이승은·오충현. 2017.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법제도 검토. 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7(2): 100-100.
조경진·서영애. 코로나19 이후 공원녹지 패러다임의 변화. 도시의 미래: 포스트 코로나 도시가 바뀐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기문당. 2021.